

# 강진 전원주택 꿈 저리 대출로 이뤘어요

### 농촌주택개량사업 귀농·귀촌인 인기 2% 고정금리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98가구 이달까지 신청 접수 병영면 빈집 40곳 '마을 호텔' 변신도

“고급리·고물가 시대에 저리 융자로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서 꿈만 같습니다.” 강진에서 2%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귀농·귀촌인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주택은 모두 33개소이다.

강진에서 살기 원하는 농촌 주민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이려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래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고 신축도 가능하다.

강진군은 올해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98개 주택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읍면 사무소가 사업 신청을 받고, 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축이나 수선을 하면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축 대출 한도는 2억원까지 늘어난다.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사업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고정금리는 1.5%까지 낮아진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28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적측량 수수료 30%도 감면된다.

강진군 칠랑면 동백마을을 유재인·김향자씨 부부도 지난해 11월 ‘강진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유씨 부부는 대지



강진군 칠랑면 동백마을을 최근 찾은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해 새로 지은 전원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820㎡(약 250평), 건평 115㎡(35평) 규모에 2층 북측 구조 주택을 지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해 2% 고정금리로 1억원 대출을 받았다.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됐다. 부지를 뺀 총건축비가 2억5000만원가량 들었으니 예산의 40% 지원받은 셈이다.

유재인씨는 “300년 된 광산 김씨 종가터에서 집을 허무는 게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지만, 장모님과 가족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며 “멀리 만덕산이 보이는 층높이 8m의 카페 같은 집을 지으니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강진군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노후 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올해는 모두 85동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물 1동에 13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빈집 수선 1000세대, 신규 마을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 규모 전원주택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강진 병영면의 빈집 40곳은 ‘마을 호텔’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 해법으로 ‘푸소 시즌 2’도 내걸었다.

‘푸소 시즌 1’이 체류형 농촌관광의 새로운 형식이었던 시즌2는 강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은퇴자나 농촌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 농부, 시골로의 자녀 유학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른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도 노후주택 개량을 비롯해 신규마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푸소, 탐진목은지발효식품 ‘묵은지’ 사업, 임대형 비닐하우스 등의 일자리와 연계해 은퇴자,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등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1@kwangju.co.kr

#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 교체 최대 1000만원 지원

###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화순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교체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970년대 산업화 상징인 ‘슬레이트 지붕’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등이 꾸준히 교체 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3000만 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측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

해 지붕 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개 동에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1개 동에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잔여 사업 물량 발생 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1개 동에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됐다”며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담양군 모바일 앱 ‘워크온’ 군민 호응

### 건강걷기... 지난해 4155명 이용

담양군이 주민 건강을 위해 마련한 모바일 앱 ‘워크온’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적인 건강걷기’를 내건 담양 워크온은 지난해 군민 4155명이 이용했다.

때와 장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 7차례에 걸친 도전 단계를 운영했다.

하루 걸음 수를 측정하고 운동 권장량을 가능할 수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 선착순 걷기 도전과 통계 분석 관리, 각종 건강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매달 ‘걷기의 날’을 지정해 군민의 걷기 실천을 돕는다.

워크온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한 뒤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선택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담양군이 매달 운영하는 ‘걷기의 날’ 행사 모습.

# ‘아름다운 장흥’ 만들고

### 일자리 창출 두 토끼 잡기

### 장흥군 23명 경관단 뒀다

장흥군이 경관관리관을 만들며 ‘아름다운 관광 장흥’ 만들기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15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23명으로 구성된 ‘탐진강 관리단 및 수목·경관관리단’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권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15명으로 구성된 ‘탐진강 관리단’은 장흥 순지교부터 부산 심천공원 내 탐진강 전 구간을 담당한다.

이 구간에서 나무 가지치기, 풀 베기, 병해충 방



제 등을 한다. ‘수목·경관관리단’ 8명은 국도, 지방도, 군도 일대 가로수나 가로 화단을 관리한다. 이들 가로수와 화단이 원활하게 지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관관리단은 각종 기계장비에 대한 작동 요령과 점검 방법을 익히고, 안전 조치와 비상 응급처치 요령 등을 배웠다.

또 작업 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 직무 교육도 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체계적인 녹지경관 환경 정비 작업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군 해빙기 사고 예방 취약시설 안전점검

### 기관·민간전문가 등 점검반 구성

함평군은 오는 4월2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축대, 옹벽 등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건설 공사 현장과 절개지, 낙석 위험 지역, 축대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이다.

오는 4월2일까지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재난 취약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은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예산 확보 등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은 응급조치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 관계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및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